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21-학인-00011 교사의 부적절 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신 청 인 ○○○(피해자 母)
피 해 자 ○○○(○○○○학교 학생)
피 신 청 인 ○○○(○○○○학교 교사)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신청인이 잘못된 학생의 이름을 칠판에 붙이는 별점제를 운영하고, 별점을 받은 학생에게 방과 후 청소를 시키는 등 피해 학생의 인격권과 휴식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지정하는 강사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고한다.

나. 교사가 ○○○○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별점제를 운영하고 신체

를 특정 자세로 제한하는 생활지도 방법은 학생 자존감 저하, 학교생활 부적응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해당 ○○○○학교 ○학년 ○반 학생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라. 이 사안은 학교관리자가 피신청인의 부적절한 교육방법 등을 학부모 민원으로 인지하였음에도 즉각 시정하지 않아 조사 구제에 이르렀고, 반복 민원을 발생시켰으므로, 학교관리자가 학부모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과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학교장에게

가. 피신청인이 피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낮은 인권 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학교 교직원 특별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당 ○○○○학교 ○학년 ○반 학생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다. 이 사안은 교사가 벌점제를 운영하는 등의 부적절한 교육방법을 실시하여,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학교관리자가 학부모 민원으로 인지하였으나 즉각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 민원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반복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는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21. 7. 28.(수)

나. 신 청 인 : ○○○(피해자 母)

다. 피 해 자 : ○○○(○○○○○학교 ○-○ 학생)

라. 피신청인 : ○○○(○○○○○학교 ○-○ 담임교사)

마. 신청요지

1) 2021. 3월부터 ○○○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반 학생들을 뒷짐 지고 까치발을 든 상태로 급식실에 가도록 하였다.

2) 옆 친구와 이야기했다는 이유, 물병을 만지작거렸다는 이유, 다른 학생의 색연필을 밟았는데 사과를 안 했다는 이유 등으로 ○○○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주고 방과 후에 교실에 남아서 청소를 하게 하였다.

3) 선생님이 수업이 끝날 때 목소리가 갈라질 정도로 학생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2. 관련규정

[붙임] 과 같다.

3.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피해자)의 주장

신청요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점심시간에 학생을 급식실로 이동시킬 때 상황은 교실에서 체온을 재고,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물도 마시고, 간격을 유지한 후 줄을 세운 후 ○학년 ○반, ○반, ○반 순으로 줄을 서서 차례로 이동합니다. 줄을 서는 과정에서 번호대로 서니까 남녀가 섞입니다. 반에 개구쟁이들이 많은데 앞이나 뒤에 있는 여학생들을 팔로 치거나 발로 차는 등 행위가 있어 안전사고가 나기도 했고, 이 때문에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뒤킴치를 살짝 들고 앞뒤 사람에게 장난하지 않도록 손을 뒤로 가게 하고, 불편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뒤킴치 들고 열중쉬어 자세를 하게 한 이유는, ○반과 ○반은 줄지어 잘 가는데 ○반에는 개구쟁이들이 많았고, 바닥이 타일인데 아이들이 장난치다 다치는 경우도 발생해 보건실에 가기도 했습니다. 남학생끼리 몸 장난하다 넘어져 다리를 다쳐서 보건실에 보낸 적이 있고, 코와 치아를 바닥에 짚어서 부어오르기도 했고, 남학생이 뒤에 서 있는 여학생을

팔로 쳐서 민원전화가 자주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2번 정도 그런 자세를 취하도록 했고, 평소에는 차렷 자세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뒤꿈치 들고 열중쉬어 자세로 급식실 이동은 두 번 정도입니다. 이동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안전사고 등에 대해 주의를 매일 줍니다. 매일 아이들에게 “애들아, 급식실까지 가는 동안 장난치지 말고 간격 유지하면서 조용히 가세요.”라고 말하며 지도합니다. 화장실 앞에서 출발하기 전에 뒤꿈치 들고 가라고 말했고, 급식실까지 이동할 때 개구쟁이들은 뒤꿈치를 살짝 들고 가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은 그냥 걸어가기도 합니다. 위 자세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장난치지 않고 얌전하게 조용히 걸어가면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뒤꿈치 들고 열중쉬어 자세가 힘들면 조용히 걸어가면 된다고 말했고, 행위를 하지 않아도 특별히 주의 주지 않습니다.

레드카드는 별점제가 아닙니다. ○○○ 캐릭터는 칠판 한쪽에 붙어 있었을 뿐이고, 학생들의 이름표는 학습(국어, 수학) 자료로 만들어 놓고 활용한 것입니다. 수업 중 안전사고가 날 경우 교무수첩에도 기록하지만, 수업 중에는 칠판 위쪽으로 이름표를 옮겨 놓고 교실에서 뛰거나 가벼운 장난을 한 경우에는 이름표를 내려주고, 하교할 때 되면 대부분 이름표를 내려줍니다. 이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큰 문제가 생기면 수첩에 적거나 학부모에게 연락하며 해결하지, 보통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급의 질서 유지를 위해 이름표를 활용할 뿐입니다. 원래는 ○○○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카드의 색깔 때문에 아이들이 레드카드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점수제도 별점제도 아닙니다.

레드카드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개구쟁이들이 많아서 학교생활 통

제가 어려웠습니다. 좋은 말로 타이르고 주의를 줘도 학생들이 단체로 행동을 하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칠판에 붙여진 이름표를 위로 올려놓다 보니까 ○○○ 두 번째 손톱에 레드와 옐로우 모양이 붙여져 있는데 그 근처로 이름표가 올려져 붙여졌습니다.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줄이기 위해 사용했고, 그 결과 뛰어들지 않으니까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친구들을 함부로 때리지 않았습니다. 이름표가 맨 위로 올라간 아이들(친구들을 이유 없이 때리거나, 수업 방해 행동을 계속하는 경우)은 하교 후 남아서 선생님이랑 교실 뒷정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학기 초에 위와 같은 방법에 관해 사전에 학생들과 상의(바른 글씨 쓰기 또는 학급 뒷정리 중 하나를 선택함)해서 정했습니다. 레드카드를 받는 학생은 일주일 2번 정도고 한 번에 1~2명 정도입니다.

레드카드를 받은 학생은 남아서 청소를 했다는 것은, 청소는 제가 하고, 학생들은 책걸상만 옮길 뿐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집에 가서 청소했다고 말하곤 하는데, 보통 한두 명 남긴 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남긴 것이지 청소를 시키기 위해 남긴 것이 아닙니다. 학급 문고를 반듯하게 세우는 방법, 책상 줄 맞추는 방법, 사물함 위 작품 정리 방법 등을 제가 시범 보이고 제가 정리하면 학생들은 한두 개 정도 정리하는 정도입니다. 레드카드를 받은 학생이 청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빠르면 1분에서 늦어지면 2분 정도 소요됩니다.

학부모에게 학생이 청소하는 이유와 하교 시간을 따로 학부모에게 안내하진 않았습니다. 남겨진 시간이 1~2분 정도여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남아서 뒷정리하고 하교하는 시간이 오후 반 하교 시간보다 빨랐습니다. ○○○ 학생의 어머니가 문제를 제기한 날도 다른 반 하교 시간보다 빨리 보냈습니다. 하교 시간이 늦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학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교실 청소가 아니라 교실 뒷정리할 때 당연히 저학년이라서 제가 함께 있었고, 제 경험상 개구쟁이들이 남기 때문에 주의도 주고, 바로 보내야겠기에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거나 연구실에 학습자료 가지러 갈 때를 제외하고는 학생들과 함께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 청소를 할 때, 물티슈로 교실 바닥을 닦게 한 것은, 오래되어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봄맞이 대청소 단원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각자 가지고 있는 물티슈를 이용해 책상 속과 사물함 등을 닦도록 했는데, 학생들이 닦으라고 하지 않은 부분까지 물티슈로 닦았습니다. 보통 물이 엇질러지거나 얼룩진 데가 있으면 제가 물티슈로 닦기도 합니다.

피해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준 상황은, 피해학생이 큰 개구쟁이는 아니었고 어리다 보니 제가 주의를 줘도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줄 공책을 2주 동안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에도 줄 공책 지참하라고 안내를 했는데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준 것 같습니다. 다른 한 번은 잘 기억나지 않고, 세 번째는 물병 때문에 주의를 줘서 하교 후 남았습니다. 다른 학생이 피해 학생과 남았는데 다른 학생 학부모와 통화를 하다 보니 두 학생이 남아있는 것을 그제야 알고 통화가 끝난 후 바로 하교시켰습니다. 당시 옆 반은 하교 전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행동을 잘못 파악하여(피해 학생이 색연필을 뺏은 것에 대해 ○○○ 학생에게 사과했는데 ○○○ 학생이 사과 못 받았다고 선생님께 말함) 레드카드를 준 일은 없으며, 색연필 떨어뜨린 학생이 ○○○ 학생인지 아닌지도 전혀 모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 학생 뒷자리에 앉은 학생이 ○○○라는 말은 했지만, 색연필 관련 일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교실에서 학생을 지도하실 때 고성을 많이 질렀다는 주장에 대해, 저는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큰소리를 지르지 못합니다. 학생들을 지도 (학생들이 싸울 때나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경우)할 때 목소리 톤이 올라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평소에는 목소리가 작아서 학생들이 목소리가 작다고 말하기도 했고,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건 학생들이 싫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을 엮지르지 않도록 물병은 가방 한쪽에 세워놓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쉬는 시간에 물을 마시라고 말하지만, 수업 시간에 물을 마신다고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화장실의 경우에는 남녀 2명씩 선착순으로 보내는데, 수업 시간에도 급하다고 하면 화장실에 가도록 했습니다. 평소에는 코로나19와 안전사고 때문에 질서를 지키게 하려고 2명씩 보낸 것이며,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물을 먹지 말라는 말을 한 적 없습니다.

4. 인정사실과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신청인이 2021년 학기 초, 점심시간에 ○학년 ○반 학생이 급식실로 이동할 때, 학생들에게 2번 정도 뒤꿈치 들고 열중쉬어 자세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2) 피신청인이 학생 지도의 방법으로 이른바 ‘레드카드’라는 벌점제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

3) 피신청인이 학급에서 레드카드를 받은 학생에게 방과 후에 청소시킨 사실이 있다.

4) 피신청인이 학급의 학생이 말을 듣지 않거나 싸울 때, 큰 소리로 지도한 사실이 있다.

나. 판단

피신청인은 급식실로 이동할 때 학생들에게 뒤꿈치 들고 열중쉬어 자세로 이동하게 한 이유를 학생과 학생의 접촉을 줄이는 안전사고 예방 차원이라고 주장하나, 학생이 급식실로 이동할 때, 1m 거리두기를 하였다면 굳이 ○○○○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뒤꿈치 들고 열중쉬어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뒤꿈치 들고 열중쉬어 자세는 이동에 불편할 뿐 아니라, 신체 발육의 정도에 따라서는 몸에 무리를 주거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자세여서 부적절한 지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피신청인은 이른바 ‘레드카드’는 별점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진술하였듯이 피신청인은 학급의 질서 유지와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줄이기 위해 칠판의 ○○○ 그림의 레드카드 부위에 잘못된 학생의 이름표를 붙였고, 레드카드를 받은 학생에게 방과 후에 남아 청소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므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준 것은 별점에 해당하며, 레드카드를 받은 학생에게 청소하도록 지시한 것 또한 별점제에 따른 처분과 다르지 않아, ‘레드카드’ 운영이 별점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피신청인이 잘못된 학생의 이름을 칠판에 붙여 놓는 방법으로 ‘레드카드’를 운영하였는데, 이는 교사가 잘못된 학생의 이름을 학급의 모든 학생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다. ‘레드카드’를 받은 학생은 다른 학생의 놀림 또는 따돌림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레드카드’를 받은 학생이 창피함과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교육방법이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인격 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학교 저학년 학생에게는 부적절한 교육방법 이라고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잘못된 학생의 문제 행동을 줄이기 위한 학습지도 방법으로 방과 후에 교실 뒷정리를 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과 후에 교실 뒷정리를 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의 놀림 또는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교실 뒷정리를 위해 남아야 하는 학생이 느끼는 창피함과 불편함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레드카드’에 이어 방과 후 교실 뒷정리는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며, 학생의 휴식권 침해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싸울 때 큰소리로 지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급의 상황에 따라 교사의 언성이 달라질 수 있고, 때로 큰 소리로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교사의 높은 언성은 목소리 이상의 감정의 전달이어서 교사의 목소리가 학생에게 무섭게 들릴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 소결

피신청인이 별점제를 운영하여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별점을 받은 학생에게 방과 후 청소를 시키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낮은 인권 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교사가 학생에게 뒤통치 들고 열중쉬어 자세로 급식실로 이동하게 하거나, 학생을 지도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의 부적절한 교육방법은 ○○○○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학생인권 침해 대상이 ○○○○학교 ○학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청과 학교가 협의하여 피해 학생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한편, 이 사안은 2021년 4월경 신청인이 담임교사의 부적절한 교육방식(레드카드)에 대해 담임교사와 학교관리자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5월경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에 바란다'에 민원을 제기한 사안이다. 이에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하였고,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별점제 운영을 시정할 것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해당 교사와 학교관리자에게 충분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한 신청인이 7월 말경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방문하여 구제신청과 함께 관계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학부모가 피신청인의 부적절한 교육방법 등의 인권침해를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학교관리자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19.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정 경 아 (인)

[붙임]

관련 법령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포
7. 학생인권교육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